

# 충북균형발전소식

2021년 11월호 e-letter

발행인 원광희 발행처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문화동15) T.043-220-1190, 220-1194 www.balance.chungbuk.go.kr

## 충북의 대응방안

###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지자체 4곳(증평·제천·영동·옥천) 선정

충청북도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7~2021)의 사업 완료 시기를 맞아, 5년 동안의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증평군, 제천시, 영동군, 옥천군 등을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

주요 평가대상으로 7개 저발전지역에서 추진한 총 19개 전략사업의 사업 추진상황, 성과달성을, 예산 집행실적, 사업지원체계, 홍보실적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방법은 실적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량평가와 각 분야별 지역균형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4인)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로 나눠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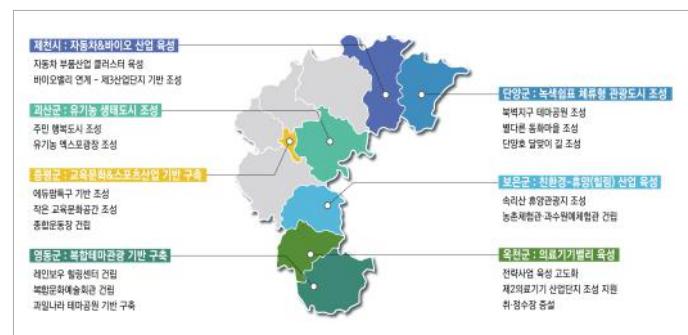
평가 결과 최우수에 증평군, 우수에 제천시, 장려에 영동군·옥천군 등 4개 시·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으며, 우수 시·군에는 2022년도 예상 확보 범위 내에서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결과를 통해 도내 7개 저발전지역이 지역별 특성과 고유 자원을 활용한 전략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었으며, 산업·문화·관광 등 각 부문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기업 유치, 고용창출, 정주여건 개선, 관광객 증가 등의 사업성과를 거두며, 도내 지역 간 불균형 완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 균형발전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교류 차원에서 12월 17일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의 경쟁력 확보하고자 1단계 사업을 2006년 처음 시작해 3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시군	사업명	
계	19개 사업	
제천	자동차&바이오 산업육성	-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 제3산업단지조성
보은	친환경-휴양(힐링) 산업 육성	- 속리산 휴양관광지 조성 - 농촌체험관 건립 - 과수원예 체험관 건립
옥천	의료기기밸리 육성	- 제2의료기기 조성 지원 - 옥천 취정수장 증설 - 전략사업 육성 고도화
영동	복합테마관광 기반 구축	- 레인보우힐링센터 건립 -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과일나라 테마공원 기반구축
증평	교육문화&스포츠 산업기반 구축	- 에듀팜특구 기반조성 - 작은 교육문화특구 조성 - 종합운동장 건립
괴산	유기농 생태도시 조성	- 주민행복도시 조성 - 유기농엑스포광장 조성
단양	녹색쉼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 -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 - 단양호 달맞이길 조성



출처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http://www.chungbuk.go.kr)) 및 지역발전연구센터 내부자료

## 2021년 충청북도 행복마을사업 20개 마을 대상, 2단계사업 지원규모 최종 확정

충청북도는 2021년 1단계 사업에 참여한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지난 11월 12일에 진행된 경연대회 결과를 합산하여, 2단계 사업에 대한 차등 지원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발표결과, 제천시 지곡마을 외 11개 마을이 최우수상에 선정돼 2단계 사업비로 각각 3천만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옥천군 인정마을 외 3개 마을은 2천만원, 단양군 외중방리마을 외 3개 마을은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행복마을사업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저발전 7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마을의 주민화합과 공동체 회복으로 지역 활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충청북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며, 올해까지 7년간 총 142개 마을이 참여했다.

충청북도은 올해부터 1단계 지원액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해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2단계 사업비로 20개 마을 모두에게 1~3천만원씩 차등 지원한다.

\* '20년 : 1단계(20곳) 3백만원 → 2단계(12곳) 3천만원 균등지원

'21년 : 1단계(20곳) 5백만원 → 2단계(20곳) 차등지원

3천만원(12), 2천만원(4), 1천만원(4)

구분	1단계 사업 대상지역(20곳)		
	시·군	읍·면	마을명
최우수 (12)	제천시 (3)	수산면	괴곡리·자곡리
		한수면	송계4리
	보은군 (1)	회인면	용촌2리
	옥천군 (1)	옥천읍	동안리
	영동군 (2)	심천면	서금리
		양강면	내공마을
	증평군 (1)	증평읍	사청마을
		청천면	삼송3리
	괴산군 (3)	감물면	원이담마을
		사리면	응암마을
		단양군 (1)	영춘면
우수 (4)	보은군 (2)	삼승면	우진리
		마로면	송현리
	옥천군 (2)	청산면	인정리·덕곡리
장려 (4)	영동군 (1)	용산면	상용리
	증평군 (1)	도안면	석곡2리
	단양군 (2)	단양읍	별곡1리
		단성면	외중방리



출처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http://www.chungbuk.go.kr))

##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동향

01

### 제천시 ‘옥순봉 출렁다리’

#### 개통 열흘 만에 방문객 9만명 돌파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가 계속되는 관광객의 방문에 힘입어 개장 한 달여 만에 방문객 약 9만명을 돌파하며 지역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섰다.

옥순봉 출렁다리는 2015년 중부내륙광역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출렁다리 주변에 주차장, 화장실, 관리동 등의 편의 시설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다.

총 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옥순봉 출렁다리는 길이 222m, 폭 1.5m를 자랑하는 무주탑 방식의 출렁다리로 청풍호 일원의 압도적인 경관과 함께 옥순봉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망할 수 있는 곳이다. 남한강 최초의 출렁다리는 빼어난 경관뿐만 아니라 스릴도 최고라 할 수 있겠다. 출렁다리에 한 걸음 내딛으면 서서히 흔들림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충분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지난 10월 22일에 정식 개장한 출렁다리는 개장한지 2일 만에 주말방문객 3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으며, 특히 10월 31일 하루 동안 18,957명이 입장하며 일일 최대 입장객 기록도 갈아치웠다. 예상을 뛰어넘는 방문객에 제천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인근 지역에 임사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교행 방해요소를 차단하며 빠른 대응에 나섰으며, 관광해설사를 배치해 도심권 주유관광지 홍보활동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도심으로 돌리는데 주력했다.

한편, 옥순봉 출렁다리는 내년 3월 31일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이후 4월 1일부터는 유료화로 전환되어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2,000원의 지역화폐를 환급할 계획이다.



출처 : 제천시 홈페이지([www.jecheon.go.kr](http://www.jecheon.go.kr))

### 증평군 ‘ACE(에이스)로 가는 길’

#### 순환형 산책로 조성 완료

증평군에 조선 중기 다독시인이자 대기만성의 상징적 인물인 백곡 김득신의 이름을 딴 다리가 생겼다.

지난 11월 29일 증평군은 형석 중·고등학교와 대성베르힐아파트를 연결하는 길이 174.6m, 폭 3.5m의 인도교를 개통했다.

지금까지 이 구간을 거쳐 등·하교를 하는 학생이나 하천변 산책을 즐기는 지역주민들은 돌다리를 이용해 왔으나, 우기철 잦은 침수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다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또한, 호우예보 시 안전상의 이유로 사전 통제를 해도 무단으로 건너는 이용객이 발생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인도교 개통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의 보행안전 향상은 물론 문화이음길과 자작나무숲, 미루나무숲 등으로 이어지는 보강천 주변 약 5km의 순환형 산책로를 완성했다.

아울러, 해당사업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95% 이상 진행돼 먼저 개통하고, 내달까지 주변 토목공사를 마무리해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교육이음길 조성은 2020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확보한 사업비 34억원(도19, 군15)으로 추진 중인 ‘ACE(에이스)로 가는 길’의 한 구간이다. ACE(에이스)로 가는 길의 다른 구간인 문화이음길(미루나무숲~형석중·고)과 병영이음길(37사단 ~연탄사거리)은 각각 지난해 11월, 올해 6월 사업을 완료했다.



출처 : 증평군 홈페이지([www.jp.go.kr](http://www.jp.go.kr))

## 고산군 ‘미니복합타운 조성’ 착공식 개최

고산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압축형도시 ‘고산 미니복합타운’이 지난 11월 24일 착공식을 개최하며,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지역인사 및 관계자들의 축하와 응원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가설방음벽 설치 등 12월 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고산읍 대사리 일원 20만 3,392㎡의 부지에 총 936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주택 및 공공문화시설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행복주택(LH 임대주택) 350호, 분양주택 1,431호, 단독주택 35호 등을 건립해 상주인구 3,377명 (1,816세대)이 거주 가능한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군민들의 수요에 발맞춰 군립도서관,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문화시설도 조성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고산군은 신혼·청년부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주거지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개발을 통해 주택 부족 및 전·월세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택지 공급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복주택과 기반시설은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고, 분양주택은 2023년에 분양해 2025년 입주 예정이다.

## 출처

- 각 시·군별 홈페이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balance.go.kr](http://www.balance.go.kr))
- 충북연구원 지방전연구센터 내부자료
- 충청북도 오늘의 道政報道 (21.11.01.~21.11.30.)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http://www.chungbuk.go.kr))



출처 : 고산군 홈페이지([www.goesan.go.kr](http://www.goesan.go.kr))